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15, 신의 섭리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신의 섭리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다음 이슈는 신의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섭리 교리는 신이 세상을 돌보거나 통제한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흥미로운데, 인간의 자유와 악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려할 질문은, 또는 어떤 특정한 섭리 교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가 얼마나 완전한가? 하나님께서 인간 사건을 미리 정하시는가? 그리고 신성한 섭리는 인간의 자유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그러니 섭리에 대한 주요 관점 각각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의 관점, 즉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신다는 관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을 포함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는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섭리는 때때로 말하듯이 세심한 것으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합니다. 단순한 신성한 예지는 신이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는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의 예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인간의 자유에 대한 특정한 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견해 각각에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포함됩니다. 몰리니즘 이라고도 알려진 신의 중간 지식 은 신이 자유로운 피조물이 할 모든 일을 알고 그에 따라 결정한다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관점과 다른 관점을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신론이 있는데, 이는 최근의 덜 정통적인 관점으로, 신은 미래를 전부 알지 못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많은 사건과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인간을 만드는 데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그게 네 가지 표준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저는 이 견해들 각각이 자유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전제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견해를 명확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견해인 강경한 결정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드 결정론자는 세상의 모든 효과와 모든 사건에는 충분한 원인이 있으며, 여기에는 선택을 하는 인간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하드 결정론자에 따르면 인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이전 원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내리는 모든 선택에는 항상 어떤 종류의 충분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드 결정론자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고 도덕적 책임도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는 어떤 의미에서 반대 견해를 취합니다. 자유주의자는 인간의 자유를 긍정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지는 이 인과결정의 법칙에 대한 예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환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자유와 보편적인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호환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의 선택은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점에서 하드 결정론자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택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상당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은 내 즉각적인 심리적 상태, 내가 가진 욕망, 내가 가진 동기의 결과입니다. 내가 외부에서 강요받지

않는 한, 내 손이 묶이지 않는 한, 방에 갇히지 않는 한, 내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내 자유를 보장한다고 호환주의자는 말합니다.

때때로 이 관점은 연성 결정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관점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지향에 관해서, 저는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세 가지 관점 중 하나가 강성 결정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상당한 자유의 감각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강성 결정론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일종의 자유주의, 일종의 양립주의로 귀결됩니다.

그 두 가지 견해 중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섭리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양립주의자, 즉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적 견해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관해서는 양립주의자입니다.

그럼, 신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견해 각각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방신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방신학은 자유의지신학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이싱거, 클라크 피녹, 존 샌더스, 윌리엄 해스커와 같은 사람들이 이를 옹호했습니다. 이들은 9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The Openness of God*라는 책을 쓴 다섯 명의 저자 중 네 명이었고, 이 책은 이 주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섭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해방 신학, 페미니즘 신학, 과정 신학에 이것의 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방신학은 독특했습니다. 적어도 이 관점의 지지자들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고백한 신자였고, 심지어 성경이 무오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경우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글썄요, 이것이 정말로 성경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그 견해는 무엇일까요? 제가 언급했듯이, 개방신학자들은 신이 창조에서 진정으로 위험을 감수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신이 완전한 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는 미래를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존재, 즉 신조차도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신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서 극심한 악의 고통의 현실을 신의 현실과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신이 완전한 신성한 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개방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자유주의적 인간의 자유에 호소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이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자유주의적 자유의지라면, 신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신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것, 즉 자유주의적 자유로운 생물이 미래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의 자유의지 남용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건 모두 우리의 탓입니다. 신은 인간이 하는 나쁜 일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유신론자들은 악의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꽤 간단합니다. 윌리엄 해스커와 데이비드 베이싱거 같은 오픈 유신론자들은 자유주의적 자유가 철저한 신적 예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집중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주장에 대한 기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반대 선택의 힘을 수반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제가 빵 푸딩 대신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했을 때,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되감아 같은 상황에 놓았을 때, 저는 진정으로 반대 선택을 하고 빵 푸딩을 선택할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동일한 인과

조건은 선택의 순간에 얻어질 수 있었고, 저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갈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양한 선택 중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었어. 그게 반대 선택의 힘이야. 글썄, 선택된 행동에 대한 철저한 신의 예지는 그 행동이 다를 수 없다는 걸 의미해.

만약 신이 내가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정말로 빵 푸딩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신의 명백한 지식을 오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신이 그것이 일어날 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것은 다를 수 없다. 따라서 철저한 신의 예지는 반대 선택의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정말로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할 것이다. 만약 신이 내가 케이크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브레드 푸딩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한 신의 예지는 특정한 것을 선택할 실제적인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모든 인간 행동에 적용된다.

따라서 인간은 완전한 신적 예지가 주어졌을 때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통지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관점은 일종의 반대 선택의 힘이며, 의지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자유의 가정을 감안할 때, 개방적 유신론자들은 완전한 신적 예지에 반대하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철저한 신적 예지의 교리에 관해 몇 가지 추가 요점을 제기합니다. 만약 신이 x 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x 는 이미 사실임이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신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섭리적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신의 미래 행동에 관해 신을 구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에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그것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신성한 자유를 없애는

듯합니다. 더욱이, 철저한 신성한 예지, 개방신학자들은 때때로 그것이 신성한 감정을 없앴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신성한 감정은 신이 모든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신이 모든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결과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가 인간의 행동에 대해 보이는 감정이나 감정적 반응은 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는 특정 사람이 그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윌리엄 해스커는 열린 유신론적 관점에서 이 신성한 전지전능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신성한 전지전능과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신성한 전능성 사이에 유사점을 만듭니다.

따라서 전능함은 전능함에 대한 표준 정의로, 적어도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신은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완벽함과 일치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asker는 전지전능함이 이와 평행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신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말했듯이, 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피조물의 행동에 대한 예지를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은 당신이 내일 할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그것을 아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Hasker의 견해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룹으로서 개방신론자들을 꽤 잘 대표합니다. 따라서 신은 완전한 예지가 없기 때문에 개방신론자들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진정한 위험을 감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일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죄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고, 어떤 주어진 인간이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제안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미래에 대한 믿음, 희망, 기대에 있어서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이 실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금지된 영역, 심각한 신학적 문제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방신학자들은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이 신념에 확고부동합니다. 윌리엄 해스커는 예측적 예언에 대한 3중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꽤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방신학에 대해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문이며, 신은 미래에 대해 착각할 수 있고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미래는 그에게 숨겨져 있고, 아시다시피, 자유의지론적 자유 때문에 그가 알 수 없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수백, 심지어 수천 년 후의 미래에 완벽하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Hasker는 우리가 그것을 여러 종류의 예언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X를 하면, 나는 Y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예언이 있습니다.

기존의 추세와 경향에 근거한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근거하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일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한 예언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렵거나 놀랍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냥,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Hasker가 만든 예언의 세 가지 분류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분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가 조건부 예언과 신이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발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범주입니다. 인간이 자유주의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추세와 경향은 전지전능한 존재조차도, 적어도 개방적 유신론적 관점에서, 미래를 신뢰할 수 있게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백 년 후의 미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런 경우들 중 많은 경우, 알다시피, 그것들은 조건부 예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두 번째 범주가 안 되고 조건부 예언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모두 신이 하려는 일의 경우여야 해.

하지만 지금은 인간의 자유와 자유의지에 대한 신의 간섭이 너무 많아서 개방적 유신론자들이 원하는 것,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존하는 데 해가 되는 듯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간섭하는 신이 있어서 일이 잘 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려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석이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유주의적 자유에 대한 개방적 유신론적 헌신을 감안하면 결국 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이 역사에 대한 그의 계획이 자유주의적 자유를 감안할 때,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Hasker는 신이 엄청나게 수완이 풍부하고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인간의 반응에 그의 계획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방적 유신론이며, 일부 주요 개방적 유신론자들이 거기에서 개발한 몇 가지 아이디어와 개념, 그리고 그 관점의 몇 가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신이 때때로 그의 견해에서 실수를 한다는 암시, 즉 신이 미래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는, 신에 대한 성경적 묘사에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섭리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모두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방신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섭리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그것들이 모두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진 기독교인에게는 정통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중 하나는 단순한 신적 예지이고, 이 견해의 주요 지지자는 데이비드 헌트입니다. 헌트는 개방적 유신론자들이 철저한 신적 예지 교리가 섭리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맞서 단순한 신적 예지를 옹호합니다.

완전한 신적 예지가 있는 신이 그렇지 않은 신보다 더 위대할까? 헌트는 그렇다고 말하며, E가 사건을 나타내고, E에 대한 신의 지식을 나타내고, 신의 행동과 신의 목적이 모두 이 사고 실험에 관련된 요소라고 하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구성합니다. 헌트는 단순한 신적 예지를 신이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헌트에 따르면, E의 K, 즉 E에 대한 신의 지식은 설명적으로 E에 의존합니다. 그는 이 관점을 완전 하고 단순한 예지라고 부르는데, 신이 전체 미래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점진적 단순 예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점진적 단순 예지에서는 신이 이득을 얻거나 미래에 대한 그의 지식이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완전한 단순 예지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압니다. 그것이 헌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헌트는 신과 사탄 사이의 가위바위보 게임을 상상하여 신이 완전한 단순한 예지를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보여줍니다. 신은 사탄이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알고 있으며, 신은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승리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순한 예지가 특정 상황에서 유용한 것입니다. 사탄과의 가위바위보 게임은 수많은 인간 상황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존 샌더스는 헌트의 견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신이 내가 내일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신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은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런 면에서 내 안전을 위한 어떤 기도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진보된 지식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트는 예방이 유일한 종류의 섭리적 활동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단순한 예지를 사용하여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즉 사탄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트는 적어도 샌더스의 비판의 요점을 놓친 듯합니다. 완전한 단순한 예지가 반대 선택의 힘을 배제하지 않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 행동에 관한 반대 선택의 힘을 배제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요점입니다. 이것이 샌더스가 헌트의 관점에서 신은 마음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알고 있을 것이고, 신은 주어진 경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획하거나, 예상하거나,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가 미리 무엇을 할지 안다면, 그는 심의하거나 계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순간이 오면, 그가 미리 알고 있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신성한 합리성이나 숙고를 앗아가는 듯하며, 그것은 반직관적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 단순한 신성한 예지 관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신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은, 비록 그것이 인간의 자유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을 족쇄로 묶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관점인 신의 중간 지식은 몰리니즘 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16세기에 예수회 신부이자 예수회 신학자인 루이스 드 몰리나가 고안했다. 그래서 몰리니즘 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

크레이그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은 경우 에비니저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자신을 찾아온 영혼 중 한 명에게 묻는 질문을 고려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의 미래에 대한 유령일 겁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힘이나 가능성에 대한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얻을 수 있는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몰리나가 소위 중간 지식, 즉 무엇이 될지에 대한 신의 지식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무엇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와 무엇이 될 것인가 사이에 있는 반사실적 조건입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와 같은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섭리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반사실적 조건문의 몇 가지 예입니다. 내가 부자라면 메르세데스 벤츠를 살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만,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에게는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 저는 사실이 아니에요. 골드워터가 대통령이었다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반사실적이에요.

그녀에게 데이트를 요청하면 그녀는 수락할 거야. 그것들은 모두 반사실적 조건문이야. 전조는 사실이 아니야.

나는 부자가 아니고, 골드워터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이 경우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데이트에 청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만약 일어났다면, 이런 다른 일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반사실적 조건문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일종의 중간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창조령의 논리적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나는 신이 자연적 지식과 자유 지식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연적 지식은 신이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세계를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진리에 대한 신의 지식입니다.

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는 자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실제 세계에 대한 모든 우연적 진실에 대한 그의 지식입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또한 그 둘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나는 신의 자연적 지식이 그의 모든 법령보다 앞서고, 그의 자유 지식은 그의 법령에서 비롯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신의 명령에 앞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이 그의 명령의 결과로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반사실적 진실에 대한 지식은 그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연적 지식과 그의 자유 지식 사이에 있으며, 그것이 중간 지식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자유 생물이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에 관해서, 신은 베드로가 이 유혹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고, 신은 베드로가 이 유혹에 직면할 세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가 그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중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로 실제로 선택하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악 사이에 완충 장치를 만듭니다.

신은 그 세상의 실제 악을 정하지 않고도 이 모든 중간 지식을 가진 세상을 정할 수 있다.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는 신이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침해하거나 악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이다. 크레이그는 아우구스티누스적 칼빈주의적 관점에 대한 대안적 섭리 관점을 비판한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그의 예지보다 앞서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드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그 단순한 신성한 예지는 미래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신성한 예정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면, 그의 명령은 이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개방적 유신론자가 단순한 신적 예지에 반대하는 요점입니다. 그리고 개방적 유신론적 관점과 관련하여 크레이그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정통적 관점의 지지자들은 그 요점에서 크레이그와 진심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중간 지식은 만족스러운 견해일까요? 신성한 중간 지식에 대한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몇 가지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감안할 때, 하나님은 자유로운 피조물이 무엇을 선택할지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진실로 만들거나 그들의 진실을 근거로 삼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근거 반대 의견입니다.

이제 크레이그는 근거 반대가 그가 진실 창조자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정한다고 주장하며 대답합니다. 이 이론은 모든 진실에 대해 그것을 진실로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레이그에 따르면 명제와 진실 사이의 관계는 인과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거 반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인가? 저는 근거 반대자가 진실 창조자 이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대응 이론의

어떤 버전이든 근거 반대를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질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중간 지식의 반사실적 진실은 정확히 무엇에 대응합니까? 정말 답변이 필요합니다.

몰리니즘이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일종의 결정론, 몰리니스트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일종의 결정론을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체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만약' 과 '반드시' 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는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유혹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신에 의해 알려졌다면, 그것은 단순한 신적 예지가 직면하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신이 아는 것은, 단순한 신적 예지이든 신적 중간 지식이든, 그가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또는 사실일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상황에 따라 그것은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가 물론 부인하고 다른 몰리니스트들이 부인할 결정론적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실제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신성한 중간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이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는 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며, 신이 인간 역사에서 자연의 모든 사건을 미리 정했다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듯이,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폴 헬름, 스티브 코웬,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인 *The Benefits of Providence*에서 이 관점을 옹호합니다 . 하지만 이 관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 모두에 문제가 있고, 아우구스티누스적 칼빈주의 관점의 문제점은 인간이 자유주의적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파괴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 관점이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자유에 대한 관점과 일치하며,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호환주의적 관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의 선택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가장 강한 동기와 욕망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여전히 자유롭다. 따라서 그것은 자유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곳에 자유의 위치를 둔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자유가 의지가 완전히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호환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자신의 선택이 결정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특정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환주의의 장점 중 일부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철저한 신적 예지와 자유주의적 자유에 대한 불일치 문제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호환주의는 또한 일상 언어와 우리가 선택의 원인을 식별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누군가가, 글썄, 왜 그걸 선택했어?라고 묻는다면, 드물지만, 누군가가, 모르겠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의 항상, 사람은 자신의 선택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것이 내가 이것과 이것과 이것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합리적인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양립주의는 또한 천국에서의 자유와 순종의 확신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거나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자유롭다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와, 천국에서 자유를 잃나요? 호환주의자에게는 아니요, 천국에서도 자유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웠던 것처럼요. 하느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천국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결정한다고 해서 당신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호환주의적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호환주의의 강점과 이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 관점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더 심각한 악의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듯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자는 이에 대해, 아니요,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자의 관점에서는 다른 섭리 관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다른 관점은 철저한 신적 예지를 확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악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더 큰 선, 신이 이 세상에 악을 허용했다는 오디세이, 심지어 더 큰 선을 가져오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형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선은, 분명히, 인간 역사상 가장 나쁜 악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 사역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위해 그 악을 구속하실 수 있다면, 그는 모든 작은 악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형적인 아우구스티누스적 칼빈주의적 반응입니다.

이 신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저 자신의 발전, 섭리에 대한 이 아우구스티누스 칼빈주의적 관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의 책,

섭리의 혜택, 신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읽어보세요 . 이 책에서 저는 과학의 실행,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미적 관점, 신의 감정, 악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 윤리와 영적 형성의 문제에 대한 신의 주권에 대한 이 관점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저는 신의 주권에 대한 높은 관점의 긍정적인 혜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열린 유신론을 비판하는 몇 장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럼, 신의 섭리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신의 섭리입니다.